



동우칼럼

생각이라는 내비게이션

운전자가 언제 내비게이션을 켜까? 길을 모를 때다. 처음 가는 길, 헛갈리는 길은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한 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간다.

인생길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길이다. 처음 가보는 길이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야 한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뭘까? 생각이다.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좌표를 향해 움직이듯, 인간의 행동과 삶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 움직인다. 차의 내비게이션이 단순히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기계라면, 우리 내면의 내비게이션은 인생을 좌우하는 지표다. 내비게이션이 입력한 대로 차를 안내하듯, 동일하게 생각에 입력된 대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입력한 목적지, 운명을 만들어낸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도착지에,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운명은 내면의 내비게이션의 설정값인 셈이다. 그래서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 하는 것이고, '생각이 결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대로로만 안내하지 않는다. 때론 돌아가기도 하고, 좁은 길로도 인도한다. “왜 이래?” 의아할 때도 있지만, 도착지에 가보면 내가 찍은 그곳이다. 행복, 성공을 입력했다고 길까지 편안하리라 생각 말자. 때론 돌아가서 더디다고 느낄 수 있고, 때론 험한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도착하면 내가 원하는 그곳이다. 내비게이션은 위성의 신호를 받아 위치를 확인하고 길을 안내한다.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면 절대 신호를 받을 수 없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생각은 무엇을 통해 길을 찾을까? 바로 하나님의 신호를 통해서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면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다. 생각이 세상적으로 흐르면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우리는 삶을 헤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류하고, 신호를 받아야 한다.

지금 내 생각이 내 미래다. 당신은 내비게이션에 무어라 입력했는가? 혹 고장 나지는 않았는가?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다

시애틀(Seattle) 집회 둘째 날, 호세(José) 목사 부부의 얼굴은 어제와 사뭇 달라보였습니다. 18년 넘게 자녀 문제, 교인들 문제로 잠들 때마다 그대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니, 목사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 받고 새로운 소망까지 생긴 마당에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매일 죽고 싶었던 사모는 이제 100세까지 살겠다며 목사님이 축복하신 대로 호세 목사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목사님 설교의 18번 주제,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은 없다”로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

니다.

목사님은 호세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시며, “나는 모세라면 너는 여호수아다. 내 능력 갑절을 받아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종이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목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축복인지라 후에 목사님도 놀라워하셨는데, 호세 목사는 교회 이름을 예수중심교회(Jesus Centered Church)로 바꾸겠다고 자주 방문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시애틀을 집회를 마치고 바로 이틀날 휴스턴(Houston)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행시간만 4~5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차도 2시간이나 됩니다. 미국이 정말 크긴 큰 나라란 것이 실감되었습니다. 휴스턴 공항에는 이스라엘 (Israel Jiménez,

거하셨습니다.

방송 준비시간도 지연되고, 인터뷰도 길게 진행되어 방송을 마치고 나니 이미 저녁 시간을 훌쩍 넘겨 마땅한 식당을 찾지 못해 전전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목사님은 젊은 목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나신다며 이스라엘 목사를 비롯한 젊은 일꾼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담임목사부터 젊은이들만 있어서 그런지 의욕은 넘쳐 보이는데, 집회 홍보나 일의 진행에 허점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을 강사로 불러놓고 무려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며 다른 순서를 진행하는 통에 목사님은 대기실에서 계속 기도만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계속 시간을 체크하며 재촉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9시가 훌쩍 넘은



2026 미국 휴스턴 집회 광경(PUA Center)

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그분을 대신 해서 보낸 엔지니어입니다. 나는 내가 머리에 손을 대는 자마다 고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인수합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된다는 생각을 바꾸고 된다, 고침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설교를 듣던 중, 목발을 짚고 있던 여인이 생각을 바꾸고 목사님을 향해 걸어나오는 장면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

41세) 목사가 직접 나와 영접하였습니다. 그 또한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출신이라고 합니다. 차로 이동하는 중에 그가 한 간증을 전해 들었는데, 그가 이미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세계 만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목사는 숙소 로비에서 마리아치(Mariachi) 공연으로 목사님을 환영해 주더니, 바로 스튜디오로 이동하여 방송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힘드신 상황이었지만, 목사님은 혼신을 다해 인터뷰에 임하시며, 기도의 능력과 복을 전파의 사명에 대해 강력히 증

시간에야 등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중 속에 들어가 의자 위를 오르내리며 안수하시는 과정에 다리를 다쳐 짚뚝거리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셨습니다.

이번 집회를 보며 이곳 현지 목회자들에게 정말 올바른 목회의 길로 인도할 영적 멘토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이 그 역할을 위해서도 이 먼 나라에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정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더욱 기도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한은택 목사



방송인터뷰



휴스턴의 이스라엘 목사



생각을 바꾸고 몰박을 버린 채 걷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9:16~22)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잡아라

물실호기(勿失好機)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잃지 말라, 기회는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꼭 붙잡아야 내 것이 됩니다. 기회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금방 지나가고, 누군가 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이상 중에 소가 나타나 제게 “도둑놈”, 이러는 겁니다. 놀라서 “내가?” 하자 “그래, 네가.”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십일조를 떼먹은 자에게 도둑이라고 했는데(말3:9), 나는 십일조를 떼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도둑놈이라고 했을까?’ 찬찬히 생각해 보니 제가 도둑놈이 맞았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목회할 당시에는 예배 후 VIP실에서 상담을 해주었는데, 간혹 성도들이 용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항상 동석하는 김종일 장로에게 건넸고, 그러다 상담자 중에 개척교회 목사나 어려운 분들이 와서 형편을 토로하면 받았던 용돈을 도로 달라 하여 그대로 건네주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주의 일이니까 십일조를 떼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회개했고, 다시는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일인데 무슨 죄야?’ 하고 합리화했다면, 오늘날 받은 복 대신 저주와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의 몫이다

여러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참을까요?”라고 묻자,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마18:22)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인간들이야 일곱 번만 참아도 대단히 오래 참아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기회를 줘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실까요? 아닙니다. 기회를 많이 주시긴 하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회를 잡아 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닭이 세 번 울자 바로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볼까요? 충신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취하고자 계락을 꾸미고, 살인 교사도 마다하지 않은 냉혹하고 야비한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사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회개의 기회를 잡아 침상을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

님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때를 마음대로 하였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여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내키지 않는 외침, 곧 멸망한다는 전언에 전 민족, 왕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치 집 나간 음탕한 아내 고멜을 기다리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자식을 맞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55:7)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하건만 그들의 귀는 막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땅에 거하라 하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렘35:15). 이쯤이면 돌아와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앗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내어주셨습니다. 가룟 유

다도, 사울도, 발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작은 죄까지 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대로 국문할찌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찌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렘18:30).

두 번째 기회는 바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저하다 돌아갔습니다(마19:16~22).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부자 청년도 베드로 못지않은 수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께 발견되어 쓰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다 슬그머니 꿈무늬를

뺏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자원하여 주님의 손에 들려드립니까?

“제가 가진 게 뭐 있어야지요.”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나귀 중에서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재주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중에서 새끼 나귀 같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더욱 감사함으로 내어드려야지요. 그러면 새끼 나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면 ‘고맙다.’ 하고 그냥 돌아서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 배로 되돌려줍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시고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심으로 베드로의 배뿐 아니라 다른 배까지 채워주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더니 만인의 아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요. 우리가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드리면 하나님은 흔들어 놀려 넘치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려도 복을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은 로마 병사에 의해 억지로 지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짴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롬16:13)라고 말했습니다.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주님께 크게 인정받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마르다와 마리아, 엘리야에게 전부를 드린 사르밧 과부, 엘리사를 진심으로 수발한 수벰 여인 모두 죽은 자를 돌려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나라’ 하며 강탈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 어찌 시려고요?

11월에 산상집회가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넘치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심비에 새기세요. 그래서 빌라도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요나처럼 고생 실컷 하고 기회를 다시 잡지 말고, 새끼 나귀처럼 무조건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하나님 앞에서

최근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여러 질문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직을 맡을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지만, 때로는 과거의 말과 행동, 재산 형성 과정, 자녀 문제와 도덕성에 관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후보자가 낙마하고 국민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오래전의 일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작은 선택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 둔 삶의 흔적은 어느 날 사람들 앞에 드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문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숨겨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공개된 이력과 감춰진 생활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모두 하나의 삶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리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데오(Coram Deo)’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

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죄와 심각한 사건만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인격은 대개 평범한 하루의 작은 선택을 통해 형성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이익을 챙기는 일,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일,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변명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은 조금씩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타협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상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맡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며, 약속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삶으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됩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 인격은 복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준비입니다.

상화평 목사

:: To Be Succeeded ::

고난의 유익

“국진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훈련은 반드시 시키고야 마신다. 네가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해.” 이어지는 어려움으로 인해 침륜에 빠져 있는 나에게 만언니가 해주었던 말이다. 이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 ‘예’뿐이었다.”는 목사님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함을 시간이 흐른 후 깨달았다.

아무리 잘 달리는 말이라도 조련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경주에 내보낼 수 있을까?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도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면 경기에 출전시킬 수는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주를 향한 열정이 크고 뜨겁더라도 주님 뜻이 아닌 내 뜻, 내 감정대로 날뛰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불편한 사람이다. 뛰어나지만 내 뜻이 앞서는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할 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한 훈련과 연단으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당신의 사람들로 빚어가신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성경 속 믿음의 선전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들이 되었다. 혈기등등하여 사람을 처

죽였던 모세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천하에 온유한 자로 변모되었고, 자기 자랑에 고자질하던 요셉도 애굽 노예로 고난받는 세월을 지내며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마저 품고 민족을 구원하는 새로운 그릇이 되었다. 자기 의가 충천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하던 사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바울로 거듭난 것 또한 고난과 연단의 열매다.

고난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며, 또한 우리를 정예부대, 즉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예’하고 부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단련시키시기 위한 훈련 도구이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던져졌을 때 ‘왜’라는 물음보다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리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119:71).

이국진 사모

:: 오늘의 메시지 ::

복 받는 비결을 알라

이사 예배를 가면 꼭 묻는 말이 있다.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열에 아홉은 ‘하나님 집’이라고 대답한다. 다시 묻는다. “그럼 하나님 집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방금까지 하나님 집이라 해놓고는 아멘을 못한다. 아멘 한다고 내놓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말이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소홀할 때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청한 자들을 부르신다. 그때 소 다섯 겨리를 산 자는 시험해봐야 하기 때문에, 밭을 산 자는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장가든 자는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한다(눅14:16~20).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묻자 예수께서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 청년은 영생의 소망은 간 데 없고, 소유를 주고 따르라는 말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소유를 버린 자는 금세에 백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눅18:18~30).

반면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주께 드렸더니 흉년의 때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생활비 전부인 두 렵 돈을 드렸던 여인은 예수가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증거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잊지 말라.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이다. 하나님은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치료하시는 분이이다. 하나님은 뺏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 부어 주시는 분이이다.

김상욱 목사



:: 영생에 이르는 길 ::

우리는 물감이 아니라 빛입니다

여러 색의 물감을 마구 섞으면 제각기 아름답던 색도 점점 탁해지고 결국 본래의 빛깔을 잃습니다. 하지만 빛은 정반대입니다.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은 모일수록 오히려 환한 흰빛이 됩니다. 서로를 지우지 않고 더해 밝아지는 것입니다. 문득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물감이 아니라 빛이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아담의 후손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습과 달란트는 달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다름은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번 아산·청주 전도집회가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전도의 뜻을 세우셨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들은 뜨거운 빨간빛을, 동행하며 영혼을 품고 위로하는 이들은 평화로운 초록빛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이들은 깊은 파란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빛이 더 밝은지

겨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니 가장 완벽하고 찬란한 순백의 빛,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전도집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까? 그만한 열매가 있을까? 그런데 돌아보니, 그 전도집회의 열매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네 할머니의 인도로 잠실 전도집회에 참석해 그날 예수를 영접했고, 그 복음이 제게 이어졌습니다.

문득 금감합니다. 오래전 그 집회를 준비한 성도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의 기도와 수고가 훗날 한 가정의 구원으로, 또 다른 일꾼의 헌신으로 이어질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집회의 모든 열매를 당장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아산과 청주에서 전해진 복음이 훗날 누구의 인생과 가정을 바꿀지, 복음의 일꾼을 세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밝힐 차례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멀리 비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빛을 통해 누군가 예수를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문천명 전도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귀를 기울이세요 ::

당겨진 화살

우리 삶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중했던 사람과 멀어지고, 소위 ‘성공’에서 떨어져 초라함이 물려드는 순간입니다. 화려한 꽃길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광야 위에 서 있고, 주변을 돌아보니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속된 말로 ‘헛타’가 오는 시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약속도 분명히 받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뒤로 가나?’, ‘나는 왜 단단하지 못한가?’ 하는 ‘낙심’이 물려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 목표를 향해 날아가기 전까지, 즉 시위를 당길 때는 목표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면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아간다더니 뒤로 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히 날아가려 할수록, 활시위는 더욱 힘껏 뒤로 당겨져야 하고, 이는 후퇴가 아니라 장력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

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보내려면, 적재적소에 이르게 하려면, 나는 다듬어져야 하고, 당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시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해 항해를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떠난 여정에 바람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나아가질 못하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고(마14:24), 그 시간이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정도까지 말 그대로 밤새 도착도 못하고 노를 저었다고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셔서 출발했는데 역경만 잔뜩 몰아치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과 함께 승선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으며,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6:21)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해결해준 분이 라는 작은 놀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까지 영적 성장이 단번에 일어난 것이지요. 반대로 이 일을 밤새 겪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성장도, 도착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원치 않는 ‘낙심’이 물려들 때, 하나님 기억합시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지금 당겨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니, 내가 가야 할 과녁, 나의 방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배에 가까이 승선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일하실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때, 더 좋은 결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해시키실 것임을 신뢰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

하인명 집사

위대한 용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임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 교회는 흑인들이 많이 출석하던 교회로, 백인우월주의 성향에 사로잡힌 21세 탈린 루프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9명의 성도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이후 범인 탈린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위대한 용서’가 미국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법정에서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범인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이 있었다. 이에 스크린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범인이 화상 전화로 연결됐다.

이번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딸 네이딘은 말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펠리샤는,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고, 아내를 잃은 남편 안소니는, “당신이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당신의 삶을 가장 귀한 분인 예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목사 할아버지 대니얼 시몬스를 잃은 손녀 알라나는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사건도 우리는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총회장 목사의 작시하신 곡 중 ‘모래와 파도’에서도 고운 모래가 되어 파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내가 먼저 큰 죄를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위대한 용서이다.

송현혜

추계산상집회

- * 11월 9일(월)~12일(목)
-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 문의: 02. 533. 9191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검사상 위는 정상인데 배가 불편하다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면 흔히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내시경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소장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SIBO(소장 내 세균 과증식)입니다.

1. SIBO란 무엇인가요?

우리 장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장에서는 세균의 수와 구성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운동이 느려지거나 장의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소장에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SIBO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식후 복부 팽만, 잦은 방귀, 복통, 설사 또는 변비입니다. 심한 경우 영양소 흡수 장애와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무엇이 다를까요?

- 위염 · 위궤양 : 명치 통증이나 속 쓰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내시경으로 확인합니다.

- 위식도역류질환 : 가슴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흔합니다.

- 과민성장증후군 : 복통과 함께 설사나 변비 등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 SIBO : 복부 팽만과 가스가 흔하며, 설사나 영양소 흡수 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증상이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이 정상이라고 해서 SIBO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스나 복부 팽만이 있다고 모두 SIBO인 것도 아닙니다.

3.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SIBO 검사에는 주로 수소 · 메탄 호흡검사가 사용됩니다.

치료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리팍시민 등의 항생제를 사용하며, 한방에서는 반하사심탕, 향사육군자탕 등을 한의사의 진료에 따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 혈변, 지속적인 구토, 또는 심한 복통이 있다면 신속하게 진료받

아야 합니다.

4. 일상에서 실천하는 장 건강 습관

첫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과식과 폭식을 피하고 천천히 충분히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책 등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실천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합니다.

넷째, 음식과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특정 음식을 먹은 후 불편감이 반복되는지 기록하면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경계하십시오. 항생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복용하지 말고,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고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Dr. 설재현 집사